

순천 코로나 대응 재난본부 '이원화'

확산 방지·효율성 강화 '보건소·본청' 역할 분담

확진자 역학조사·동선공개 갈팡질팡... 불안 야기

순천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함에 따라 전남 동부지역 지자체들은 타 지역에서의 공직자 출·퇴근 금지령을 내리는 등 확산 방지와 방역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1일 순천시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달 13일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방문판매업체를 다녀온 70대 여성이 순천 5번 환자로 확진되면서 지역사회에 급격히 전파됐다.

순천 5번 확진자는 서울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나 특별한 위험 요소가 없어 평상시와 같이 생활하면서 가족들에 이어 순천 15번 확진자에게 전파시켰다. 순천 15번 확진자는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순천시 휘트니스와 사우나를 이용하며 400여명과 접촉하면서 급속히 지역사회에 확산시켰다. 9월 1일 현재까지 순천시 코로나 19 확진자는 60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역학조사를 위한 동선파악과 함께 긴급방역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재난본부 조직 정비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효과를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순천시 재난본부는 보건소 대책상황실과 본청 대책지원반으로 조직을 이원화했다.

코로나19에 대한 현장감제, 확진자 입원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지원, 방역 및 대응은 보건소 대책상황실에서 부시장이 총괄하며,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관리,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지도·단속, 음압병상 확보, 읍면동 일제 방역소

독, 자원봉사자 관리, 유관기관 협력, 도시민 홍보 등의 업무는 대책지원반에서 행정자치국장이 담당하도록 역할분담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재난본부가 역학조사나 동선 공개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시민들의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

순천시는 확진자의 동선을 알리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며 정정하는 사례가 빈번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면서 급기야 지난 28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순천시 확진자 동선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순천시 방역관리를 중앙에서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4일 순천 45번 확진자가 순천시 A골프장을 다녀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26일 골프장을 즉각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다. A골프장은 직원들에게 확진자의 방문 사실을 알리는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방문객들에게는 고지할 권한이 없어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순천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확

진자가 A골프장을 다녀간 사실을 시민들에게 안전문자로 통보하지 않고 뒤늦게 시정 홈페이지에만 공개했다.

방역 당국이 혼선을 빚는 사이 골프장 직원을 사이에서는 '말마체육관에서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가 오갔고 막상 검사를 받기 위해 체육관을 찾은 일부 직원들은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에 발길을 돌리며 오라카락하는 순천시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24일 골프장을 찾은 내장객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순천시 방역대책과 A골프장의 처신에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동부취재본부=김근중 기자



보성 울벼쌀 첫 수확 김철우 보성군수(가운데)가 보성군 웅치면 울벼쌀 첫 수확 현장에서 장마와 태풍을 이겨낸 수확의 기쁨을 농민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보성군 제공

포스코 노사, 2020년 임금동결 합의

고용안정·상품권지급 등 포함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동결에 합의하고 지난 1일 포항 본사에서 '2020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1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 교섭대표 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이 지난달 31일 '2020년 임금협약 회사 제시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률

93.44%로 가결됐다.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달 11일 대외원대회를 열어 회사의 경영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올해 임금고집을 회사에 위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회사는 이를 뒤인 13일 '임금협약 제시안'을 마련해 노조에 전달했다.

가결된 회사 제시안에는 임금동결 외에 ▲고용안정 ▲전통시장상품권 50만원 지

급 ▲출산·육아제도 개선 ▲휴업중단 등이 포함돼 있다.

포스코는 올해 경영실적악화를 감안해 기본임금은 동결하되 직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상품권 5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주문량 회복에 따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직원들의 노고를 고려해 휴업을 중단키로 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첫째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임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새로운 가정형성 촉진을 위해 200만원의 임양지원금도 신설했다. 유치원부터 지원되는 자녀장학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1~3세 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포스코케미칼은 최근 손동기 양극소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극재 광양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포스코케미칼 제공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광양공장 착공

오는 2022년 가동 목표 총 2,895억원 투자

포스코케미칼이 최근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에 대응해 양극재 광양공장 3단계 확장 건설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착공식에는 손동기 양극소재실장을 비롯한 사업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양극재 광양공장 확장은 총 3만톤 규모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용 NCMA 양극재 생산라인 건설을 위해 진행되며 오는 2022년 가동을 목표로 총 2,895억원이 투자된다. 증설되는 생산라인에서는 1회 충전시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3세대 전기차 배터리에 활용될 NCMA 양극재가 양산될 예정이다.

포스코케미칼은 3단계 증설이 완료되면 양극재 생산능력을 기존의 연산 4만톤에서 7만톤으로 확장하게 된다. 양극재 7

만톤은 60Kwh급 전기차 배터리 84만여대에 사용될 수 있는 양이다.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광양 울촌산단에 축구장 20개 크기인 16만 5,203㎡ 면적으로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향후에도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양공장 증설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해외공장 설립도 추진해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등 급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케미칼 손동기 양극소재실장은 "양극재 광양공장의 성공적인 건설로 최고 품질의 차세대 배터리 소재 생산 기반을 마련해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객사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빛그린 광양매실,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빛그린 광양매실'이 '2020년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지역특산물 부문에서 6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기초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해 1차 대표브랜드를 선정하고, 국내 최

고의 브랜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그동안 광양시는 매실산업활성화와 광양매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매실생산 재배기술 보급 및 지원 확대 ▲가공제품 개발, 유통 및 가공시설 확충 ▲마케팅 활성화 ▲매실 기능성 연구 등 특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남순천틀게이트 공사 정체

지난달 31일 영암-순천간 남해고속도로 남순천틀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차선이 통제돼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도로공사 남순천 영업소는 순천방향으로 들어오는 하이패스 차선의 방호벽이 파손돼 그나마 통행량이 가장 적은 오

전 9시 30분부터 50분간 수리를 했다고 밝혔다.

그로 인해 정체 차선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A씨는 "공사에 대한 안내표지판 하나 없이 무작정 기다리며 바쁜 시간을 허비했다. 차량 왕래가 많은 틀게이트 공사 같은 경우는 차량의 통행이 적은 야간이나 새벽시간을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서울 양천구의회, 구례군에 위문품 전달

서울 양천구의회가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구례군에 지난달 31일 위문품을 전달했다.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온 양천구 서병원 의원은 "양천구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구례지역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생활 복구를 기원하며, 코로나로 인해 수해극복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는 말과 함께

3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구례군은 주택침수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만 약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8월 말 현재 아직도 복구하지 못하고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인원이 약 190세대 360여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순천시체육회, 방역 봉사 활동

순천시체육회는 갑작스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사국을 시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대대적인 지역사회 방역 봉사 활동에 나섰다.

그동안 두 번에 걸친 체육회 자체 방역 봉사보다 더 확대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모든 입장을 방문해 방역 봉사를 하고 있다.

순천시체육회 이장대 회장은 "체육회뿐 아니라 47개의 체육회 산하 가맹 종목 단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계속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하루빨리 힘든 시기를 벗어나서 건강 으뜸, 활력 순천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코로나 사태를 모두 합심해서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주)비즈케어, 순천시에 열화상카메라 기증

순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지난달 31일 비즈케어에서 500만원 상당의 열화상 카메라를 순천시에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된 열화상 카메라는 AI를 기반으로 얼굴 캡처 알고리즘과 ISP이미지 처리기술, AI 열화상 스크리닝 시스템을 통해 고화질의 열화상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순천시는 지원된 열화상 카메라를 시청사 출입구에 설치해 출입자의 체온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

비즈케어 이장민 대표는 "코로나19에 맞서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 보건인력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열화상 카메라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